영어어문교육 *제31권* 4호 2025년 겨울
https://doi.org/10.35828/etak.2025.31.4.153

고교학점제 영어과 교과목에 대한 영어 교사들의 인식 및 전문성 강화 방안*

이동훈**
(정산고등학교)
강문구***
(공주대학교)

Lee, Dong-Hoon, & Kang, Mun-Koo. (2025). A study on English teachers' perceptions of English curriculum under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and strategies for Enhancing their professional competence.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31*(4), 153-169.

This study aimed to explore professional development needs perceived by in-service high school English teacher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newly implemented 2022 revised English curriculum under South Korea's High School Credit System. A survey was conducted with 53 English teachers to analyze their perceptions of the value of essential subjects, their current levels of teaching competency, and their preferred methods of support.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were calculat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to measure teachers' perceptions and needs analysis. This study revealed that teachers expressed a strong demand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with a notable emphasis on communication-focused subjects aimed at practical language use. Three most cited areas of competency were practical English teaching ability, the ability to integrate interdisciplinary topics like literature, media, and writing into lessons, and the competency to conduct discussion, debate, and project-based lessons. Moreover, this study shows the need to strengthen teacher professionalism for teaching the new subjects introduced the 2022 revised English curriculum. Many teachers preferred support such as university-based training, overseas programs, and useful teaching materials. The study also points out that stronger administrative and system support is needed for the 2022 revised English curriculum to work well and for teachers to keep developing their expertise.

* 이 논문은 2025년 국립공주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1저자 *** 교신저자

[High School Credit System/2022 revised English curriculum/teacher professional developement/ English subject, 고교학점제/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교사전문성 신장/영어 교과목]

Ⅰ. 서론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형 교육으로의 전환이라는 큰 목표로 학생이 주도적으로 목표를 설정해 학습하는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하위 목표로 두고 있다(교육부, 2021). 이러한 맥락에서 대한민국은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하고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교육부, 2021). 이는 학교에서 설정한 교육과정을 수동적으로 이수하는 것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진로와 연계된 학업 계획을 수립하고 책임있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와 수업 다양화를 지향하는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이다(교육부, 2021). 그런데 이러한 교육 정책의 변화는 학생들에게만 새로운 방식의 학습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다. 교사들에게도 기존의 수업 운영 방식과는 달리 다양한 교과목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한 명의 교사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해야만 하는 보이지 않는 상당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목표에 이의를 제기하는 교사들이나 학생들은 거의 없다. 그러나 정책의 개발 및 추진과 교육 현장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를 무시할 수는 없다. 다양한 과목에 대한 전문성 요구와 실제적인 준비도 등은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일부 교과목에 대해서 교사들의 전문적인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 수업의 질이 저하되고 그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 흥미 및 동기 감퇴되며, 그리고 궁극적으로 고교학점제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1. 영어과 각 교과목의 교육적 필요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파악
2. 영어과 각 교과목에 대한 전문성 확보 정도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파악
3. 영어과 각 교과목 수업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파악
4. 영어과 교사 전문성 신장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파악
5. 영어과 교사 전문성 신장 지원 방안에 대한 교사들의 선호도 파악
6. 영어 교사 전문성 확보의 필요성과 그것을 위한 정책적 실행 방안 제안
7. 궁극적으로, 정책과 교육 현장 간의 괴리를 좁혀, 교사들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전문성 신장을 기반으로 교육 발전에 기여

Ⅱ. 선행 연구 고찰

1. 고교학점제에 관한 교사와 학생 인식 관련 연구

차효정(2020)의 연구에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운영한 학교의 영어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교사들이 고교학점제도가 추구하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대부분 그 취지를 공감하였으나, 국내 대학 입시 제도와의 연계성 문제와 이수제도를 포함한 평가 시스템의 불확실성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을 우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그 연구 과정에서 기초 교과 단위 축소와 영어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결국 고교학점제 환경에서 영어 교사 역할의 변화와 업무 증가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것이 우려되었다. 따라서 차효정(2020)은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영어 교사들에게 교수 방법 및 평가 방식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제공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계속해서 연구하여 정책들 간의 일관성을 부여하는 것이 선결 과제임을 강조했다.

최근에 고교학점제에서의 영어과 수업을 학생의 시각에서 분석하는 연구도 이루어졌다. 김현정과 이상기(2025)는 고등학생 87명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에서 영어과 진로선택과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들은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으나 과목 선택권의 제한, 평가 방식의 부담, 실용성 부족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영어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로 흥미 부족과 진로 관련성 결여를 언급했으며, 효과적인 영어 수업을 위해 학생의 학습 의지, 안정된 입시 제도, 학교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교사의 노력만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 동기와 제도적 지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2. 영어과 교육과정 변화와 교사 전문성 관련 연구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은 기존의 공통영어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공통(공통영어1, 공통영어2), 일반선택(영어I, 영어II, 영어 독해와 작문), 진로선택(영미문학읽기, 영어발표와 토론, 직무영어, 심화영어), 그리고 융합선택(미디어 영어, 세계문화와 영어, 실생활 영어회화 등)으로 세분화되었다(교육부, 2022).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은 기존의 공통·일반·진로 선택 2원 체계에서 공통,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의 삼원 체계로 확장되었다(교육부, 2022).

김시은 외(2025)의 연구에서는 고교학점제 관련 정책 문서 30편을 분석하여 고교학점제가 교사에게 요구하는 능력을 다과목 공급, 학업 성취 수준 관리, 평가 다각화, 진로·학업 연계 지도의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다양한 과목에 대한 수업 운영을 위해 영어교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과 연결되어 지며, 전문적인 교사 연수와 지원체계의 방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천혁진(2025)은 영어과 11개 선택 과목의 성취기준을 분석하여 일반 선택 과목 간 성취기준의 중복성이 매우 높음을 밝혔고, 이해와 표현 영역에서는 과목 간 변별성이 미약함을 지적하였다. 반면에 영미 문학 읽기나 영어 발표와 토론과 같은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기준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뚜렷한 차별성을 보였지만 실제 수업에서는 기존 영어 수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융합 선택 과목(미디어 영어, 세계문화와 영어)은 학습자의 실생활 맥락을 반영한 성취기준을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 대한 교수·학습 지원 체계가 부족하여 과목 취지 구현에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2022 개정 영어과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과목 간 성취기준의 차별성 확보와 함께 교사의 교육과정 이해 및 재구성 역량이 핵심적 과제로 제시되었다.

3. 영어과 선택과목 운영 실태와 전문성 지원 방안 연구

선행 연구들은 고교학점제 아래에 영어과 선택과목 운영은 교사들이 특정 과목에 대하여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정도와 그를 위한 지원이 수업의 질을 결정할 것이라는 공통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채시은과 최문홍(2021)은 영어과 선택교과목 중 영미 문학 읽기 운영 사례를 분석한 연구에서 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영어수업이 학습자의 정의적, 인지적 능력을 모두 높여주며 또한 학생의 동기, 자신감, 자기주도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수업 운영이 학생의 통합적 언어 능력과 문화적 이해를 신장시키는 데 효과적임을 보여주었지만 이를 담당하는 교사의 문학적 지식과 수업 설계 능력이 수업의 효과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서수경과 김정렬(2019)의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등장하는 문학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문학적인 요소가 학생의 언어 표현력과 문화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교사의 문학에 대한 이해력과 수업 설계 역량이 부족할 경우 학습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창윤과 신창원(2024)의 연구는 제주 지역 일반고를 대상으로 영미 문학 읽기 과목의 편성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대부분의 학교가 영어 교사 배치, 수업 시수 부족, 평가 방식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과목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교사들은 문학 작품 해석과 텍스트 선정, 수업 자료 개발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밝히고 있어 문학적 지도 역량과 교수 설계 및 운영 능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사 연수의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에서 문학 관련 영어 교과목의 효과적인 수업 진행을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김성혜(2021)는 고교학점제 영어 선택과목 운영에 대한 교사 대상 인식 조사

에서 대부분의 교사가 고교학점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목 개설 여건, 평가의 공정성, 수업 준비 부담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진로선택 및 융합선택 과목의 경우, 교수자료의 부족, 학생들 간의 수준 차이, 수업 시수의 제한으로 인해 교사들이 수업 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들은 새로운 과목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수 및 협력적 학습 기회 등의 확대가 가장 필요로 하다고 응답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는 충남의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총 53명의 영어 교사가 참여하였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참여자 중 남교사는 25명, 여교사는 28명이다. 데이터는 2025학년도 8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수집되었다. 설문지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6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나, 이에 응답한 53명의 설문 결과를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 교사들에게 이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설문조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교사들만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안내하였으며, 교사들이 설문에 응답하는 데 평균 약 10분 정도 소요되었다.

표 1
참여자의 수 및 일반적 특징

분류	일반적 특징	*N*(%)
성별	남	25(47.2)
	여	28(52.8)
연령	20대	5(9.4)
	30대	16(30.2)
	40대	25(47.2)
	50대 이상	7(13.2)
교직경력	5년 미만	7(13.2)
	5~10년	11(20.8)
	11~15년	12(22.6)
	16년~20년	16(30.2)
	21년 이상	7(13.2)
근무 학교 유형	일반계 고등학교	42(79.2)
	특성화고등학교(마이스터고 포함)	10(18.9)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1(1.9)
총계		53(100)

2. 연구 도구

현직 고등학교 영어교사들의 각 교과목에 대한 다양한 인식의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하여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들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개발하고 검증을 실시했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영어과 각 교과목의 교육적 필요성 인식, 각 교과목에 대한 전문성 확보에 대한 인식, 각 교과목의 수업 운영의 어려움 인식, 교사의 전문성 신장 필요 영역에 대한 인식, 교사의 전문성 신장 지원 방안의 선호도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Cronbach's α 계수가 .75로 이상으로 산출되어, 복수 응답이 가능하여 산 Cronbach's α 계수 산출이 불가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이 필요한 영역에 관한 설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만족스러운 수준의 내적 일관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2
설문 문항의 내적 일관성 파악

분류	Cronbach's α 계수
영어과 각 교과목의 교육적 필요성 인식	0.75
영어과 각 교과목에 대한 전문성 확보에 대한 인식	0.76
영어과 각 교과목의 수업 운영의 어려움 인식	0.75
영어 교사의 전문성 신장 필요 영역에 대한 인식	0.75
영어 교사의 전문성 신장 지원 방안의 선호도	0.78

3. 설문 데이터 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통계 분석 프로그램 SPSS 26.0 버전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사용한 통계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에서의 영어과 교과목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요구 분석을 측정하기 위해 기술 통계를 통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했다. 둘째, 자유로운 응답을 분류한 후 개방형 문항을 분석했다.

IV. 설문 결과 분석

1. 2015 개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 영어과 교과목 비교

설문 결과를 분석하기 이전에 설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영어과 교육과정 상 교과목에 대한 변화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의 교과목과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표 3
2015 개정과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교과목 비교(교육부, 2015 & 2022)

분류	2015 개정 영어과 교과목	2022 개정 영어과 교과목
공통과목	영어	기본영어1, 기본영어2 공통영어1, 공통영어2
일반선택	영어Ⅰ	영어Ⅰ
	영어Ⅱ	영어Ⅱ
	영어회화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독해와 작문	
	실용 영어	영미 문학 읽기
	영어권문화	영어 발표와 토론
진로선택	영미 문학 읽기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진로 영어	심화영어
		직무영어
융합선택		실생활 영어 회화
		미디어 영어
		세계 문화와 영어
총계	9 과목	15 과목

위의 표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의 교과목과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의 교과목 사이의 차이점은 과목의 절대적 수가 많아지고 융합선택 분야가 신설되면서 영어과의 교과가 다양해짐을 볼 수가 있다. 교육부가 밝히고 있는 또다른 큰 특징은 언어의 기능 중심에서 이해와 표현 중심으로의 전환이다. 그러한 전환과 더불어 고교학점제의 본격적인 시행과 맞물리며 다양한 선택 과목의 필요성이 더해져 새로운 과목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새로운 교과목들을 접하게 되는 교사들의 준비성에는 의문이 남는다는 것이다. 어떤 과목이던 개발하여 편성하면 교사들은 무조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담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2.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각 교과목의 교육적 필요성 인식

본 장에서는 현직 고등학교 영어교사 53명을 대상으로,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의 각 교과목이 학교에서 교육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조사하였다. 응답은 5점 Likert 척도(1점=필요하지 않음, 5점=아주 필요함)를 사용하였다.

표 4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각 교과목의 교육 필요성 인식 (*N* = 53)

분류	과목명	1점 *N*	2점 *N*	3점 *N*	4점 *N*	5점 *N*	*M* (*SD*)
공통	기본영어1,2	20	20	13	0	0	1.87(0.78)
과목	공통영어1,2	0	0	0	23	30	4.57(0.50)
일반	영어Ⅰ,Ⅱ	0	0	0	22	31	4.58(0.49)
선택	영어독해와작문	0	0	0	30	23	4.43(0.50)
진로	영미문학읽기	13	10	20	10	0	2.51(1.06)

선택	영어발표와토론	0	13	15	20	5	3.23(0.93)
	직무영어	20	16	17	0	0	1.98(0.82)
	심화영어	0	0	13	27	13	4.00(0.66)
	심화영어독해와 작문	0	1	15	14	23	3.96(1.04)
융합 선택	실생활영어회화	0	0	20	24	9	3.75(0.78)
	미디어영어	15	20	18	0	0	2.08(0.83)
	세계문화와영어	13	20	20	0	0	2.15(0.83)

위의 설문 결과를 분석해보면 공통과목 영역 중 공통영어Ⅰ, Ⅱ는 5점(아주 필요함) 응답이 30명(56.6%)으로 가장 많았으며, 4점(다소 필요함) 응답이 23명(43.4%)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통영어1,2의 표준편차가 0.50으로 낮아 응답자 간 인식이 일관적임을 보여준다. 교사 대부분이 공통영어 과목을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교육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기본영어Ⅰ, Ⅱ의 경우 1점(20명, 37.7%)과 2점(20명, 37.7%) 응답이 많아, 교육 필요성이 낮게 인식되었다. 이는 기본영어Ⅰ, Ⅱ는 학습 부진 학생들의 보충 과목으로 인식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반선택 영역 중 영어Ⅰ, Ⅱ는 5점 응답이 31명(58.5%)으로 가장 많았고, 영어독해와 작문은 4점(30명, 56.6%)과 5점(23명, 43.4%)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표준편차가 0.5 이하로 낮아 응답자 간 인식 차이가 거의 없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이 일반선택 과목을 영어에 대한 기본 학습과 실용영어 능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핵심 과목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7진로선택 영역 과목들에 있어서는 과목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영미 문학 읽기는 1, 2, 3점 응답이 대부분으로(총 43명, 81.1%), 교사들은 문학 중심 과목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에 영어 발표와 토론은 4점(20명, 37.7%), 5점(5명, 9.4%)으로, 교사들이 의사소통 기능이 중심이 되는 과목의 교육적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영미문학 읽기와 영어발표와 토론은 각각 표준편차가 1.06과 0.93으로 교사들의 인식이 다소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직무영어는 1, 2, 3점 응답만이 분포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교육현장 적용에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심화영어는 4점(27명, 50.9%)과 5점(13명, 24.5%)의 응답률이 높게 형성되었다. 이것은 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화 과목을 교육할 필요성이 높게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은 5점(23명, 43.4%)이 가장 많았다. 심화 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나타났다. 다만,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은 표준편차가 1.04로 응답자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융합선택 과목군에서 실생활 영어회화는 3점(20명, 37.7%)과 4점(24명, 45.3%) 응답이 많았다. 이러한 응답 형태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실용적 영어 사용 능력의 필요성을 교사들이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미디어 영어와 세계 문화와 영어는 1, 2, 3점의 응답이 고르게 분포한 것이 확인되고 있고 이것은 교사들이 해당 과목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 현장 하에서 해당 교과목의 개설 가능성이나 학생들의 수요에는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평가해보자면 교사들은 공통 및 일반선택 과목을 학교 현장에서 교육할 필요성은 높게 평가한 반면 진로선택 및 융합선택 과목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고교학점제가 목표로 하는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이라는 취지와는 큰 괴리를 보인다. 여전히 교사들은 전통적 영어과목 구조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영어 발표와 토론, 실생활 영어회화와 같은 의사소통 중심 과목은 필요성이 높게 인식되고 영미 문학 읽기나 직무영어와 같은 특수 목적형 과목은 필요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이는 교사들이 수업 운영 및 평가와 관련한 부담감, 고교학점제 하에서 학생들의 해당 과목에 대한 선택 저조, 수업 운영을 위한 지원 부족 등 현실적인 요인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3.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각 교과목에 대한 전문성 확보 인식

본 장에서는 현직 고등학교 영어교사 53명을 대상으로, 각 과목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교사 본인이 해당 과목에 대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조사하였다. 응답은 Likert 5점 척도(1점=전문성이 없음, 5점=전문성이 아주 높음)를 사용하였다.

표 5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각 교과목에 대한 교사 전문성 확보 인식(N = 53)

분류	과목명	1점 *N*	2점 *N*	3점 *N*	4점 *N*	5점 *N*	*M* (*SD*)
공통 과목	기본영어1,2	0	0	13	10	30	4.32(0.86)
	공통영어1,2	0	0	0	13	40	4.75(0.43)
일반 선택	영어Ⅰ,Ⅱ	0	0	0	12	41	4.79(0.41)
	영어독해와작문	0	0	0	20	33	4.62(0.49)
	영미문학읽기	19	20	13	1	0	1.94(0.81)
	영어발표와토론	13	19	15	5	1	2.15(0.94)
진로 선택	직무영어	19	16	18	0	0	1.98(0.82)
	심화영어	0	0	9	27	27	4.15(0.77)
	심화영어독해와 작문	0	5	7	24	17	3.98(0.96)
융합 선택	실생활영어회화	2	13	27	8	3	2.92(0.84)
	미디어영어	14	21	15	2	1	2.08(0.92)
	세계문화와영어	13	17	13	5	5	2.62(1.34)

위의 설문 결과를 분석해보면 공통과목 및 일반선택 과목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매우 높음을 볼 수가 있다. 공통과목의 경우 기본영어 1,2(M = 4.32, SD = 0.86)와 공통영어1,2(M = 4.75, SD = 0.43)는 모두 평균이 4점 이상으로 나타나, 교사들이 해당 과목의 전문성 확보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공통영어1,2는 표준편차가 0.43으로 낮아 응답자 간 인식이 매우 일관적이었다. 반면 기본영어1,2는 SD = 0.86으로 다소 높아, 일부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음을 알 수 있다. 영어I,II(M=4.79, SD=0.41)와 영어독해와 작문(M = 4.62, SD = 0.49) 역시 평균이 4.6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준편차가 모두 0.5 이하로 낮아, 교사들이 일반선택 과목의 전문성 확보 필요성에 대해 강한 합의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해당 교과목들이 기존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다뤄져 온 과목으로서 교사들이 오랜 기간을 통해 지도 경험과 교수자료를 축적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진로선택 과목군에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교과에서 교사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인식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미 문학 읽기, 영어 발표와 토론, 직무영어의 평균은 1.9 ~ 2.2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전문성 확보 인식 수준을 보였다. 이는 해당 과목들이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새롭게 개설되거나 학생들의 선택율이 낮은 과목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과목 지도에 관하여 심도있는 연수를 받거나 충분한 지도 경험을 확보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다. 반면에 심화 과목들에서는 심화영어는 평균 4.2점,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은 4.0점 수준으로 높은 수준의 전문성 인식 정도를 보였다. 이는 교사들이 심화과목들을 기존 수능형 교과의 연장선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융합선택 과목에 대한 전문성 확보 인식은 전반적으로 낮다. 실생활 영어회화, 미디어 영어, 세계 문화와 영어에 대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인식은 평균 2.08 ~ 2.92로 비교적 매우 낮은 인식의 응답을 보였다. 이는 융합 교과가 언어 기능 외의 문화·매체 이해 및 실생활 맥락을 포함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수업 설계 및 자료 개발, 평가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4.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각 교과목에 대한 수업 운영 어려움에 대한 인식

본 장에서는 현직 고등학교 영어교사 53명을 대상으로 각 과목 수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어려움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를 조사하였다. 응답은 Likert 5점 척도(1점=수업 운영에 어려움이 없음, 5점=수업 운영이 아주 어려움)를 사용하였다.

표 6
영어과 각 과목의 수업 운영 어려움에 대한 교사 응답 분포 (N=53)

분류	과목명	1점 N	2점 N	3점 N	4점 N	5점 N	M (SD)
공통	기본영어1,2	30	15	8	0	0	1.58(0.74)
과목	공통영어1,2	42	11	0	0	0	1.21(0.41)
일반	영어Ⅰ,Ⅱ	43	10	0	0	0	1.19(0.40)
선택	영어독해와작문	35	18	0	0	0	1.34(0.48)
진로	영미문학읽기	0	0	9	18	26	4.32(0.74)

선택	영어발표와토론	0	0	13	19	21	4.15(0.81)
	직무영어	0	0	21	16	16	3.91(0.83)
	심화영어	27	27	9	0	0	1.66(0.65)
	심화영어독해와 작문	16	23	6	8	0	1.94(0.99)
융합	실생활영어회화	2	5	14	18	14	3.79(1.09)
선택	미디어영어	1	2	10	21	19	4.02(0.94)
	세계문화와영어	2	2	13	17	19	3.92(1.07)

위의 설문 결과를 분석해보면 공통과목 및 일반선택 과목의 수업 운영 어려움이 매우 낮음을 볼 수 있다. 공통영어Ⅰ·Ⅱ, 영어Ⅰ·Ⅱ, 영어독해와 작문의 평균은 1.2~1.3점 수준으로, 대다수 교사들이 거의 어렵지 않다는 응답을 하였다. 표준편차가 0.5 이하로 나타난 점은 응답자 간 차이가 거의 없음을 시사한다. 이는 해당 교과목이 교사들에게 익숙하고 수업자료가 풍부한 교과목이기 때문이며 교수경험과 평가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반면에 진로선택 과목군에서 일부 과목은 수업 운영 어려움이 높다고 인식함을 알 수가 있다. 영미 문학 읽기(4.32점), 영어 발표와 토론(4.15점), 직무영어(3.91점)는 교사들이 전문성 부족 인식이 높았던 과목으로 그에 따른 수업 운영 어려움이 큰 과목들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준편차가 0.7~0.8 수준으로, 응답자 간 인식 차이는 크지 않으며 대체로 높은 난이도에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해당 과목들이 전문적 내용 지식(content knowledge)뿐만 아니라, 학습자 중심 활동 수업 및 수행 평가의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영어 발표와 토론의 경우, 교사의 영어 구사 능력만이 아니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설계 능력도 필요해 부담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심화과목의 경우 중간 이하 수준의 어려움으로 인식되고 있다. 심화영어(1.66점)와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1.94점)은 전반적으로 중간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심화영어의 경우 기존 수능형 학습과 유사하여 교사들이 비교적 익숙하게 인식하고 그에 반해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은 쓰기 중심 평가와 과정중심 피드백 등 새로운 교수법이 요구되어 일부 교사들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융합선택 과목군에서는 수업 운영 어려움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미디어 영어(4.02점), 세계 문화와 영어(3.92점), 실생활 영어회화(3.79점)는 전체 평균 대비 높은 수업 운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표준편차가 1.0 내외로 나타난 점은 응답자 간 인식 차이가 비교적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부 교사는 높은 난이도를, 일부는 중간 수준의 난이도를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융합 교과가 언어지식 전달을 넘어서 문화·매체·소통 역량을 통합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수업 설계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과목에 대한 교사용 지도 방법 및 효과적인 수업 지도 사례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고 교재 및 평가 기준의 부재도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5. 교사 전문성 신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인식 분석

본 장에서는 현직 고등학교 영어교사 53명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영어과목 수업 운영을 위해 교사의 전문성 신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인식을 복수 응답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각각의 응답자는 3가지 항목을 하도록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총 응답의 수는 159건으로 집계되었다.

표 7
전문성 신장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교사의 응답 분포

전문성 신장이 필요한 영역	*N*	*N* = 53 (%)	*N* = 159 (%)
교육과정 해석 및 재구성 역량	31	58.49	19.5
평가 및 성취기준 기반 수업 설계 역량	5	9.43	3.1
프로젝트 및 토론·토의형 수업 역량	33	62.26	20.8
실용영어 교수 역량	42	79.25	26.4
융합적 주제(문학, 매체, 작문 등) 이해 및 적용	38	71.70	23.9
영어권 문화 학습 기회	10	18.87	6.3

위의 설문 결과를 분석해보면, 실용영어 교수 역량 신장의 필요성이 가장 높게 인식됨(79.25%)을 볼 수 있다. 응답자의 약 80%인 절대 다수가 실용영어 교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고교학점제 하에서 학생의 진로와 적성 중심 과목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교사들이 실용적 언어 사용 지도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문법과 독해 중심 교수 경험에서 벗어나, 의사소통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융합적 주제 이해 및 적용 역량(71.70%)과 프로젝트 및 토론·토의형 수업 역량(62.26%)도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미디어 영어, 세계 문화와 영어와 같은 융합선택 과목의 도입으로 인하여 교사들은 언어 외적인 영역(문화, 매체, 문학 등)에 대한 통합적 이해와 수업 설계 및 운영 능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프로젝트 및 토론·토의형 수업 역시 학습자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수업 설계를 필요로 하므로 그것을 위한 교사의 수업 운영 전문성과 다양한 분야에 대한 사고 능력을 모두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교육과정 해석 및 재구성 역량(58.49%)도 중요한 역량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것은 고교학점제의 본질이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점과 긴밀하게 연관된다. 교사는 국가, 교육청 혹은 학교에 의해 지정된 교과목들 만을 가르치는 역할을 넘어서 학교의 여건과 학생들의 진로에 맞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하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음을 아마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평가 및 성취기준 기반 수업 설계 역량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9.43%)을 보였다. 이것은 대부분의 교사들이 이미 성취기준 중심 평가 체계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업 설계나 해당 교과목 내용의 전문성 문제를 더 중요하게 인식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기

타 의견으로는 영어권 문화 학습 기회(18.87%)가 있었다. 이들은 영어권 문화에 대한 심화적 이해, 즉 학생들을 가르칠 정도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세계 문화와 영어, 영미 문학 읽기 등 문화적 맥락 이해가 요구되는 교과목 운영에 나타나는 내용 지식의 한계를 반영한다.

6. 전문성 신장 지원 방안 선호도 분석

본 장에서는 현직 고등학교 영어교사 53명을 대상으로 교사들이 인식하는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 방안의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응답은 5점 Likert 척도(1점=선호하지 않음, 5점=아주 선호함)를 사용하였다.

표 8
영어과 교사 전문성 신장 지원 방안에 대한 교사 선호도 응답 분포 (*N* = 53)

전문성 신장 지원 방안	1점 *N*(%)	2점 *N*(%)	3점 *N*(%)	4점 *N*(%)	5점 *N*(%)	*M* (*SD*)
교육청 및 전국단위 교과 연수 및 워크숍 강화	5 (9.4)	7 (13.2)	18 (34.0)	11 (20.8)	12 (22.6)	3.34(1.23)
교육청 및 전국 단위 과목별 수업사례 공유	3 (5.7)	7 (13.2)	15 (28.3)	21 (39.6)	7 (13.2)	3.42(1.05)
교육청 및 전국 단위 영어교사 학습공동체 활성화	13 (24.5)	14 (26.4)	16 (30.2)	4 (7.5)	6 (11.3)	2.55(1.25)
수업용 콘텐츠 자료 개발 및 지원	3 (5.7)	5 (9.4)	14 (26.4)	17 (32.1)	14 (26.4)	3.64(1.13)
대학과 연계한 보수 교육 지원	1 (1.9)	2 (3.8)	9 (17.0)	18 (34.0)	23 (43.4)	4.13(0.95)
해외 연수 활성화를 통한 언어 및 문화 학습 기회 부여	1 (1.9)	3 (5.7)	11 (20.8)	17 (32.1)	21 (39.6)	4.02(1.00)
기타(주관식 작성)	원격연수자료 개발을 통한 연수					

위 설문 결과를 분석해보면, 대학과 연계한 보수 교육 지원(4.13점)과 해외연수 활성화를 통한 언어 및 문화 학습 기회 부여(4.02점)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교사들이 단순하고 일반화된 연수보다는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문학, 매체, 작문 등 융합형 교과목 지도를 위한 영어교육 분야의 전문적인 심화연수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해외연수는 교사들이 영어권 문화와 실생활 언어를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수업용 콘텐츠 자료 개발 및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3.64점)도 높은 편이다. 다수의 교사가 교수 자료 부족을 전문성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고교학점제 하에서 다양한 과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유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와 교수 자료를 위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교육청 및 전국 단위 과목별 수업사례 공유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3.42점)를 보이고 있다. 현장 교사들이 다른 교사들이나 다른 교육 주체의 모범 수업사례 중심의 실제적 수업 운영과 관련된 연수 형태를 선호함을 보여준다. 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나 교과목에 관한 형식적인 대규모 강의형 연수보다는 현장 교사의 실천 경험을 공유하여 구체적인 교수 전략을 얻는 방식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일방적이고 다수에 대한 정책 안내 및 전달식의 연수 형태에 대한 피로감과 실효성 한계로 인해 교육청 단위 교과연수 및 워크숍(3.34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는 단순한 정책의 안내 및 전달식 연수보다는 참여형·사례형 연수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영어교사 공동체 활성화는 가장 낮은 선호도(2.55점)를 보였는데 이는 현장의 교사들이 학습공동체 활동의 지속성 부족, 활동에 필요한 시간 부담, 실질적 보상의 미비 등을 문제로 인식하여 꺼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은 학습공동체의 필요성이 아주 낮다는 의미보다는 현재 학습공동체 운영 방식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고교학점제의 틀 안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의해 편성된 영어과 교과목(공통,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현직 영어 교사들이 인식하는 전문성 신장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역량 강화 지원 방안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현직 영어교사 5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현장 영어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육적 필요성, 교사의 전문성 확보 수준, 영어과 과목의 수업 운영의 어려움, 교사 전문성 신장이 필요한 영역, 교사 전문성 신장 지원 방안 선호도를 파악했다.

1. 주요 연구 결과 요약

첫째, 교사들은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높은 교육적 필요성과 전문성 확보 수준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해당 과목들이 기존 교육과정에서부터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온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진로 선택 및 융합 선택 과목 중 새롭게 도입되거나 실용적 언어 사용 및 융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과목인 영미 문학 읽기나 미디어 영어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지도할 필요성을 낮게 평가함과 동시에 그러한 교과목들에 대하여 자신들의 전문성 확보 수준이

매우 낮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보였다. 또한 실생활 영어회화, 영어 발표와 토론,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등의 의사소통 중심 과목의 필요성에 대해서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그러한 교과목들에 대한 지도 역량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한 수업 운영의 어려움을 함께 드러냈다.

둘째, 교사 전문성 신장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분석 결과, 실용영어 교수 역량(79.25%), 융합적 주제 이해 및 적용 역량(71.70%), 그리고 프로젝트 및 토론·토의형 수업 역량(62.26%)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교사들이 기존 문법과 독해 중심의 지도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실용적 언어 사용 및 통합적 사고를 지도할 수 있는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상당하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평가 및 성취기준 기반 수업 설계 역량의 신장 요구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셋째, 교사들은 대학과 연계한 보수 교육 지원(4.13점)과 해외 연수 활성화를 통한 언어 및 문화 학습 기회 부여(4.02점)를 가장 선호하는 전문성 신장 지원 방안으로 꼽았다. 이는 단순하고 일반적인 연수보다는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내용을 제공하는 기회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수업용 콘텐츠 자료 개발 및 지원(3.64점) 역시 높은 선호도를 보여 다양한 선택 과목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교수 자료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시사해다.

2.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모든 교과목의 성공적인 운영과 영어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1) 현장 수요에 기반한 실습형 연수 체제 구축

교사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실용영어, 토의·토론, 융합적 주제 적용 역량을 중심으로 단순 강의식이 아닌 수업 시연, 피드백, 그리고 교사 간 수업 나눔 형태의 실습형 연수를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현장 맞춤형 그리고 교사 개개인 맞춤형 연수는 교사들의 실질적인 수업 실행 역량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2) 다양한 교과목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자료 공유 시스템 강화

진로 및 융합 선택 과목 운영 시 교사들이 느끼는 자료 및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청 또는 국가 수준에서 과목별 교수 및 평가 사례, 평가 도구, 루브릭(rubric), 성취기준 해석 등을 포함하는 공유 플랫폼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보급, 발전시켜야 한다. 이것은 교사의 다교과 수업 설계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수업의 질을 균일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3) 교사의 연구 및 전문성 개발 활동을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

교사들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대학과 연계한 심화 교육 지원 및 해외 연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교과 협의회 및 학습공동체가 비효율적인 문제(지속적 운영의 어려움, 시간 부담, 보상의 미비 등)를 극복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습공동체 운영을 위한 연구비 지원, 다교과 담당교사 수업 시수 감축, 장기 연수 제도 등 다양한 행정적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단순히 교과목의 다양화를 넘어서 영어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찰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영어 교사는 변화하는 세상과 교육과정 속에서 학습자의 언어 역량과 사고 역량을 함께 길러낼 수 있는 핵심적인 주체이므로 학교, 각 교육청 그리고 국가 차원의 다층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교육부. (2015).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교육부.

교육부. (2021).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 교육부.

교육부. (2022).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교육부.

김성혜. (2021). 2015 개정 영어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개선 방안 탐색. *현대영어교육, 22*(3), 34-44. http://doi.org/10.18095/meeso.2021.22.3.34

김시은, 염태근, 소경희. (2025). 고교학점제 정책 문서에서 나타나는 교사 전문성 담론에 관한 비판적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42*(1), 463-490. http://doi.org/10.24211/tjkte.2025.42.1.463

김창윤, 신창원. (2024). 고등학교 영미 문학 읽기 과목 편성·운영 분석: 제주지역 일반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영어교육연구*, *55*, 33-61.

김현정, 이상기. (2025). 고교학점제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어과 수업에 대한 인식 조사. *외국어교육연구, 39*(1), 69-88. http://dx.doi.org/10.16933/sfle.2025.39.1.69

서수경, 김정렬. (2019).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문학 텍스트 및 과업에 대한 고찰: 3차, 5차, 2007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 중심으로. *외국학연구, 50*, 71-106. http://doi.org/10.15755/jfs.2019..50.71

차효정. (2020).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영어과 교육과정 및 교원 인식 조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채시은, 최문홍. (2021). 고교학점제 선택교과「영미 문학 읽기」운영 사례 연구. *영어영문학21, 34*(4), 389-418. http://doi.org/10.35771/engdoi.2021.34.4.017
천혁진. (2025).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선택 과목 성취기준 분석: 차별성과 중복성을 중심으로. *영어어문교육, 31*(1), 103-133.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Secondary

이동훈(교사)
정산고등학교
33354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칠갑산로 1897
Email: pirate31@daum.net

강문구(교수)
국립공주대학교 영어교육과
32588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Email: kangmunkoo@hanmail.net

Received: October 13, 2025
Reviewed: November 30, 2025
Revised version received: Decemcer 20, 2025